

매염제에 따른 황칠나무의 염색성

전지은¹, 최재홍², 성유리¹, 채다영¹, 박영미¹

¹영남대학교 의류패션학과, ²영남대학교 원예생명과학과

The Dyeability of *Dendropanax morbifera* Lev. with Mordants

¹Jieun Jeon, ¹Dayoung Chae, ¹Yuri Sung, ²Jaehong Choi, ¹Youngmi Park

¹Clothing and Fashion, Yeungnam University, ²Horticulture and Life Science, Yeungnam University

ymp9397@yu.ac.kr, 053-810-2791

Abstract

본 연구에서는 한국 특산종으로 남해안 섬에서만 자라는 황칠나무(*Dendropanax morbifera* Lev., 황칠이라고 함)를 사용하여 염색하였다. 황칠나무는 면역력 증진, 신경 안정, 항균, 항산화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황칠염색은 60°C에서 이루어졌으며, 발효한 액체 황칠을 염료로 사용하였다. 매염제에 따른 염색을 실시하고 CCM을 사용하여 색발현 특성을 알아보았다. 면직물의 경우 대조직물의 K/S값이 0.13에 비해 식소다 동시매염, 고백반·식소다 동시매염, 고백반 동시매염, 고백반 선매염, 황수(영천지역의 약수) 후매염은 각각 1.53, 0.99, 1.62, 1.65, 2.21로 차이가 있었다. 울직물의 경우 대조직물의 K/S값이 0.48에 비해 식소다 동시매염, 고백반 동시매염, 고백반·식소다 동시매염, 고백반 선매염, 황수 후매염은 각각 2.61, 1.97, 3.20, 3.07, 4.59로 차이가 있었다. 견직물의 경우 대조직물의 K/S값이 0.30에 비해 식소다 동시매염, 고백반 동시매염, 고백반·식소다 동시매염, 고백반 선매염, 황수 후매염은 각각 2.06, 1.21, 1.77, 1.80, 3.23로 차이가 있었다. 황수 매염이 식소다나 백반 매염보다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, 매염의 순서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.

Acknowledgement

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Yeungnam University research grant in 2012 (#211-H-380-094).

참고문헌

1. J. E. Jeon, J. H. Choi, J. S. Kim, S. H. Kim and Y. M. Park, The Dyeing with Fermented Chitosan - Mugwort Mixed Powder to Make LOHAS Fabrics, *The 11th Asian Textile Conference*, p.168, 2011.
2. J. E. Jeon, J. H. Jeon, S. A. Lee, J. H. Choi and Y. M. Park, Dyeproperties of Artificial silk/paper mulberry mixed fabrics using *Dendropanax morbifera* Lev., *한국염색가공학회 제45차 학술발표회*, p.33, 2011.